

라파즈, 4일간 사랑의 집짓기 활동

건축자재 생산기업 라파즈그룹의 한국법인인 라파즈코리아(라파즈한라시멘트·한국라파즈석고보드)가 7월 19-22일 경기 양평에서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전개한다고 7월19일 발표했다.

봉사활동에는 한국라파즈석고보드의 프레드릭 비용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가족, 신입사원 등 57명이 참여해 주택 4동 16가구를 세울 예정이다.

라파즈코리아는 2011년 <사랑의 집짓기>에 소요되는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물량과 인력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라파즈가 지원한 시멘트는 1만2000톤, 석고보드는 8만4000장에 달한다.

프레드릭 비용 사장은 “최근 장맛비로 인해 집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서 “집짓기 봉사활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20>